

# SM "동방 3人 사인위조 주장 확인서 위조된 것"

입력 2009. 11. 25. 09:27 · 수정 2009. 11. 25. 09:27



[뉴스엔 김형우 기자]SM엔터테인먼트가 동방신기 3인(시아준수 영웅재중 믹키유천)의 사인위조라고 제기된 공연 확인서가 오히려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25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24일 보도된 동방신기 공연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며 A씨의 확인서 역시 날조된 공연 확인서를 짜 맞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명백한 거짓 진술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케줄에 대해 연예인이 인지하고 있을 시, 간단한 신청 서류는 매니저가 대신해 매니저 재량으로 사인을 하는 사례가 많다. 동방신기 역시 일본,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바쁜 스케줄로, 세 번째 아시아 투어 공연 시 멤버들의 동의 하에 현장 매니저의 재량으로 서명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렇게 대리 사인한 경우에도 중국 남경, 북경, 상해 등의 공연을 어떠한 문제 제기 없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다.

또 "지난 24일 보도된 공연 확인서는 원본확인서들과 다른 짜깁기된 위조확인서이며, 실제로 원본 확인서와 제목 및 문구 등이 확연히 다르다. 이 확인서는 임의로 작성한 문서 내용에 2009년 6월 제출한 에스엠 타운 상해 콘서트 관련 서류에 있던 사인을 오려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도된 A씨의 확인서를 보면 사전 사후에 멤버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 또 2009년 3월 심천 공연에 대해 멤버들을 대신해 사인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심천 공연의 계약 자체가 2009년 7월에 성사되어 모든 관련 문서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A씨의 확인서 또한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짓 문서이다. 또한 심천 공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재판부 앞에서 김재중 군이 명확히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심천 공연의 경우는 동방신기의 매니저 이OO씨가 지난 9월 멤버들의 동의 하에 사인을 대신해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의 법률고문인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는 이미 스케줄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므로 관행적으로 매니저가 매니저의 재량 하에 대리 사인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결론적으로, 3인 측이 공개한 동방신기 공연 확인서는 짜깁기하여 위조된 것이며 A씨의 확인서 역시 악의적으로 당사를 비방하기 위해 거짓으로 작성됐거나, 누군가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짜맞추기 위하여 작성된 확인서다"고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방신기의 현장 로드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 7월 중국 유학을 사유로 당사를 퇴사한 후에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세 명 멤버 중 한 명의 형의 연에게 데뷔준비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당사는 금번 건에 대하여 배후 인물들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사에 대한 사문서위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형우 cox109@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